

《十抄詩》 소재 曹唐 游仙詩의 의의와 가치

주 기 평*

<目次>

- | | |
|-----------------------|----------------------|
| I. 시작하며 | III. 《十抄詩》 소재 曹唐 游仙詩 |
| II. 조당 유선시의 유전 현황과 특징 | IV. 맺으며 |

I. 시작하며

《十抄詩》는 고려 초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려 문인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中晚唐과 五代 초기에 활동한 중국시인 26인과 신라시인 4인의 칠언율시를 각 10수씩, 총 300수를 수록한 것이다. 현재 《십초시》의 판본으로는 시만 수록해 놓은 《十抄詩》와 고려 중후반 子産 스님이 夾注를 달아 조선 증반에 중간된 《夾注名賢十抄詩》의 두 종류가 전하고 있는데, 1) 여기에는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에 수록되지 않은 시인들의 佚詩가 110수, 작자가 다르게 소개된 것이 16수 실려 있다. 2) 그 중에는 《전당시》에 시가 전혀 실려 있지 않거나 1수만 전해지고 있는 李雄과

* 서울대학교 중문과 강사

- 1) 《십초시》의 판본 현황과 간행 과정에 대해서는 강석중, <《十抄詩》 소재 중국 일시 연구>(《중국문학》 53, 2007)와 임도현, <《(협주)명현십초시》의 간행목적과 유전양상>(《중국어문학》 57, 2011)에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 2) 佚詩의 수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는데, 강석중은 <《十抄詩》의 中國詩 選詩 樣相 一考>(《한국한시연구 11》, 2003)에서 《전당시》와의 전면적인 비교분석을 토대로 이와 같이 밝혔다.

韋蟾을 비롯하여, 그 전부가 《전당시》 미수록시인 章孝標와 吳仁璧 등의 시가 포함되어 있어, 다만 그 문헌학적 가치 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시인을 발굴하여 그 시적 경향과 성취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십초시》의 이러한 의의와 가치로 인해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막론하고, 그 간행 시기와 목적 및 선시의 양상과 佚詩 현황, 체제상의 특징과 의미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일정정도 유의미한 성과들이 도출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십초시》 소재 일시를 중심으로 해당 시인의 전체 시세계 속에서의 해당 일시의 의의와 가치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³⁾ 현전하는 시가 많은 시인의 경우, 《십초시》 소재 일시의 의의와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시인의 남아 있는 유일한 시일 경우는 말할 나위 없이, 다만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일 지라도 그것이 해당 시인의 어느 일관된 맥락 속에서의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하고 보충하는 시라고 한다면, 이것의 의의와 가치 또한 낮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십초시》 소재 曹唐 游仙詩는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조당 유선시의 유전 현황을 소개하고 이전 시기 유선시의 창작경향에 대한 사적고찰을 통해 조당 유선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십초시》에 실린 각 시의 내용을 분석하고 조당 유선시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고찰해 봄으로써 《십초시》 소재 일시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3)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우 또한 房銳의 <從雍陶佚詩看《十抄詩》的文献價值>(《西華大學學報》 28:1, 2006)가 유일하다.

II. 조당 유선시의 유전 현황과 특징

曹唐(797?~866?)은 桂州(지금의 廣西省 桂林)의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자는 堯賓이다. 그의 행적은 자료가 많지 않아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唐詩紀事》에 그가 “처음에 도사였다가 후에 使府從事를 지냈으며, 함통(咸通, 860~873) 연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으며,⁴⁾ 《郡齋讀書誌》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⁵⁾ 다만 <曹祠部集序>에 “여러 부의 종사를 여러 번 지내다 폭질로 집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⁶⁾ 줄곧 낮은 관직을 전전하며 불우한 삶을 산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일생은 비록 불우하였으나 당시 시로 명성이 높았고 특히 유선시가 유명하여, 《廣西通志》에서는 “시에 능하기로 이름났으니, 그 <大小游仙詩>는 말이 더욱 청려하여 三唐 중 따로 한 체를 이루었다.”라 하였고,⁷⁾ 후대 유선시에 대한 영향 또한 지대하여 清 厲鶚은 “곽박을 본받고 조당을 배워, 전후로 쓴 것이 모두 삼백 수였다.”라 칭하기도 하였다.⁸⁾

조당의 시집은 《新唐書·藝文志》에는 “《조당집》 3권이 있다”라 하였고, 송대 서목 중 《郡齋讀書志》과 《直齋書錄解題》, 《遂初堂書目》에는 모두 “《조당집》 1권”으로 되어 있는 등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권수의 차이와 상관없이 이들은 원대를 거치며 모두 산실된 것으로 여겨지며, 청대에 이르러 《전당시》에서 2권 총 155수로 편집되었다. 현재 《전당시》 외에 별도의 시집으로 후인이 편집한 《曹從事詩集》이 전한다.

조당의 유선시는 경물묘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생생할 뿐 아니라 제재의 대부분을 고대의 신화전설과 지괴소설로부터 취해 풍부한 상상력이 두

4) “初爲道士, 后爲使府從事, 咸通中卒” 《唐詩紀事》 권58.

5) “咸通中爲吏部從事, 卒” 《郡齋讀書誌》 권4.

6) “累爲諸府從事, 以暴疾卒於家” 《四庫全書》 1083책 <曹祠部集序>

7) “以能詩名, 其大小游仙諸篇語尤清麗, 在三唐中又別裁一體焉” 《四庫全書》 567책 《廣西通志》 권84.

8) “效顰郭璞, 學步曹唐, 前後所爲數, 凡三百首” 厲鶚, <前後游仙詩百首自序>

드러지며, 사건 중심의 서사적인 표현과 ‘신화의 세속화’ 내지는 ‘신화의 인간화’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유선시들과는 사뭇 다른 풍격과 성취를 나타낸다.

‘游仙’과 관련한 내용은 《山海經》, 《淮南子》 등 고대 전적에서 일찍부터 나타나며, 문학작품 또한 굴원의 <離騷>와 <遠游>, 《莊子》 등 선진시기부터 찾아볼 수 있다. 조당 이전의 유선시는 그 성격상 한대 이전과 위진남북조, 당의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漢代는 樂府民歌와 辭賦에서 유선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악부민가 중에서는 <王子喬>, <長歌行>, <董桃行> 등에서, 사부에서는 司馬相如의 <大人賦>, 揚雄의 <太玄賦>, 班彪의 <覽海賦>, 馮衍의 <顯志賦> 등에서 유선의 내용이 나타난다. 이들 작품에서는 주로 현실 속에서 가공의 仙境을 설정하고 신선을 추구하는 제반 활동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 한대의 유선은 신선사상에 대한 관심과 숭모,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과 추구가 그 근본 바탕이었음을 알 수 있다.

魏晉南北朝 시기는 유가의 기풍이 쇠미해지고 잦은 정변과 국가 전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游仙의 주제가 더욱 중시되었고 시가문학의 흥성에 맞추어 본격적인 유선시가 창작된 시기이다. 魏代에는 曹操의 <氣出倡>, <陌上桑>, <秋胡行> 등을 시작으로 曹丕의 <折楊柳行>이 쓰여졌으며, 마침내 曹植에 의해 유선을 정식 제목으로 삼은 <游仙詩>가 출현하게 되었다. 西晉 시기에는 張華와 張協의 <游仙詩>와 陸機의 <招魂>이 쓰여지고 郭璞에 이르러 총14수의 <游仙詩>가 쓰여지면서 위진남북조 유선시는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東晉의 庾闡, 王彪之, 葛洪, 郭文, 楊泉, 楊羲와 南朝의 江淹과 沈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인들에 의해 유선시는 지속적으로 쓰여지며 그들 시의 주요한 주제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진남북조의 문인들은 유선시의 형식을 통해 혼란한 세상에 대한 반감과 자신의 개인적인 좌절감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유선시에는 한대와는 달리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함께 내재되어 있으며 개인적 좌절로 인한 비통과 상실감이 그 기본적인 정서를 이루고 있다. 때

문에 鍾嶸 또한 이들의 유선시에 대해 “유선의 작품은 말이 대부분 비분 강개하며 현실과 어긋나고 멀어져 오묘함을 추구한다.”라 평하였던 것이다.⁹⁾

唐代에 들어 당조정의 도교 숭상과 적극적인 도학 장려책의 영향으로 궁중과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도학의 기풍이 크게 흥성하게 되었으며, 유선시의 창작 또한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다시금 고조되게 된다. 절대적인 작품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작자의 분포 또한 일반 시인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唐太宗과 唐高宗을 비롯하여 陳子昂, 王績, 初唐四傑 등도 유선시를 남기고 있다. 이 시기 유선시의 특징은 신선세계가 다만 환상세계가 아닌 실제세계로서 현실적인 추구가 가능한 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즉 도관을 선계로 여기고, 도사를 신선과 동일시하며, 명산대천을 유람함으로써 득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유선의 세속화’라 칭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성당 시기 李白의 유선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李白은 스스로를 ‘세상에 잠시 귀양 온 신선[謫仙]’이라 칭하며 전국 각지를 유람하고 이름난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이에 대한 감회를 많은 유선시로 나타내었는데, 자신을 신선이라 여겼던 만큼 그의 유선시에서의 선경과 신선은 마치 고향이나 친구처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묘사되며,¹⁰⁾ 많은 부분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정서가 그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외 성당 시기 유선시 작가로 吳筠과 孟浩然 등이 있다. 安史의 난을 거친 중당 이후의 유선시는 크게 두 가지의 경향을 나타내는데, 李賀의 <天上謠>에서와 같이 선계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현실에 대한 도피와 망각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盧仝의 <憶金鵝山沈山人>에서와 같

9) “游仙之作, 詞多慷慨, 乖遠玄宗” 《詩品》

10) 이백이 시에서 신선은 자신과 수평적인 관계로서 상호 동경하며 친구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교류하는 지인들을 자주 신선으로 비유하였다. 임도현, 《이백의 자아 추구 양상과 문학적 반영》, 서울대 박사논문, 2012.8. 98쪽.

이 선계조차 현실의 모순되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이다. 만당에 들어와 잦은 정변과 사회 모순의 심화로 현실 속에서의 이상적인 선계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짐에 따라 項斯의 <夢仙>, 司空圖의 <夢中> 등과 같이 많은 유선시들이 꿈의 형식을 차용한 이른바 ‘夢仙詩’를 통해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유선 의식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조당의 유선시는 이와 같은 유선시의 사적 전변과정 속에서 한대와 위진남북조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전통 또한 계승하여 그 경계를 더욱 확장시켰으니, 이러한 계승과 創新의 성과로 인해 조당은 郭璞과 더불어 중국 유선시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辛元房의 《唐才子傳》에 “조당은 <大游仙詩> 50수와 <小游仙詩> 100편 등을 썼으며, 悲歡과 離合의 요체를 기술하여 당시에 크게 유행하였다.”고 하였는데,¹¹⁾ 현재 《전당시》 권640에 <대유선시> 17수가, 권641에 <소유선시> 99수가 전하고 있다.¹²⁾ <대유선시>와 <소유선시>는 형식상 7언 율시와 7언 절구로 구분되는데, 그 형식상의 차이 뿐 아니라 내용상의 차이 또한 분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소유선시>의 경우 비록 신화와 전설 속의 사물이나 제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신화전설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다만 도가적인 지향을 나타내거나 개인의 한적한 정서나 풍취 또는 현실적 비통함을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각각의 내용 또한 상호 연관성이 없이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대유선시>의 경우 신화전설의 내용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며, 여러 수에 걸쳐 하나의 고사를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등 각각의 작품이 긴밀한 연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유선시>는 <소유선시>에 비해 이야기 중심의 서사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조당은 여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하여 본래의 신화전설에는 없는 내용 또한 각색하여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유선시 내에

11) “曹唐作大游仙詩五十篇，又小游仙詩等，紀其悲歡離合之要，大播於時” 《唐才子傳》 권8.

12) 이중 소유선시 1수는 《당시기사》에 인용된 것을 보충 수록한 것이다.

서의 내적 완결성을 갖춤으로써 그 서사성을 보다 증대시키고 있다.¹³⁾

개인의 신화전설을 다루는 방식 또한 매우 특징적인데 인간과 신 또는 신과 신의 관계를 실연에 빠진 남녀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신화의 내용을 인간적인 애달픔과 비통함으로 전환시키고 있다.¹⁴⁾ 서사의 방식에 있어 시인 자신의 감정은 철저히 배제시킨 채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직서적인 서술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李商隱의 유선시가 유사한 비애감을 표현하면서도 이를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인 자신의 내면의식과 현실적인 걱정을 함께 결합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¹⁵⁾

이상과 같은 조당 <대유선시>와 <소유선시>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비록 동일한 시인에 의해 쓰여졌지만, 각기 다른 성격과 의미적 지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유선시>가 ‘유선에 대한 개인적 지향과 이를 통한 좌절감의 표현’이라는 한대와 위진남북조 유선시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한다면, <대유선시>는 ‘유선의 세속화’라는 당대 유선시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신화를 인간의 감정으로 세속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그 경계를 더욱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화 중심의 서사적 표현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유선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으니, 조당 유선시의 문학적 가치와 의의는 아무래도 <소유선시>보다는 <대유선시>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일실된 <대유선시>가 다수 실려 있는 《십초시》는 더욱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

다음에서 조당 <대유선시> 속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十抄詩》 소재 조당 유선시를 매 작품별로 고찰해 봄으로써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3) 《십초시》에 수록된 03. <穆王有懷崑崙舊遊>와 05. <再訪玉眞不遇>가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4) 조당의 <대유선시>는 《전당시》 소재 17수와 《십초시》 소재 佚詩 8수를 통틀어, 도가적 수양을 권면하고 장생불사를 찬미한 <黃初平將入金華山> 1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남녀 간의 연정을 묘사하고 있다.

15) 辛鑫, <曹唐大游仙詩的文學價值>, 《現代語文》 5, 文學研究版, 2008.

III. 《十抄詩》 소재 曹唐 游仙詩

《십초시》에 수록되어 있는 조당의 시 10수는 모두 7언 율시로, <대유선시>에 속한다. 이중 《전당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총8수이며, 나머지 2수 또한 《전당시》와 제목이 다르게 되어 있다.¹⁶⁾ 任半塘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전당시》에 실려 있는 <대유선시> 17수는 총11가지 고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편제는 다음과 같다.¹⁷⁾

- ① <漢武帝將候西王母下降>
<漢武帝于宮中宴西王母>
- ② <劉晨阮肇游天台>
<劉阮洞中遇仙子>
<仙子送劉阮出洞>
<仙子洞中有懷劉阮>
<劉阮再到天台, 不復見仙子>
- ③ <織女懷牽牛>
- ④ <王遠宴麻姑蔡經宅>
- ⑤ <萼綠華將歸九疑, 留別許真人>
- ⑥ <穆王宴王母于九光流霞館>
- ⑦ <紫霞張休眞>
- ⑧ <張碩重寄杜蘭香>
<玉女杜蘭香下嫁于張碩>
- ⑨ <簫史携弄女上升>
- ⑩ <黃初平將入金華山>
- ⑪ <漢武帝思李夫人>

16) 《십초시》의 <武帝將候西王母降>과 <萼綠華將歸九疑別許真人>이 《전당시》에는 각각 <漢武帝將候西王母下降>, <萼綠華將歸九疑, 留別許真人>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 상의 글자 차이는 전혀 없다.

17) 陳繼明 注, 《曹唐詩注》, 上海古籍出版社, 1996, 부록, 任半塘, 《唐戲弄·雜考·二唐傳奇與唐戲》

고사별 분포를 보면 적게는 1수에서 많게는 5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량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본래 <대유선시>가 50수였음을 감안하면, 현재 보이는 이 분포는 그다지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고사에 여러 수를 시를 연결하여 썼음을 알 수 있고, 제목에 비추어 보아 <張碩重寄杜蘭香>는 앞의 시가 있고 <黃初平將入金華山>는 뒤의 시 있으며 <織女懷牽牛> 또한 이에 상응하는 <牽牛懷織女>라는 시가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중국 학자들은 일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¹⁸⁾ 실제 《십초시》는 이와 같은 조당 일시의 보고로서, <대유선시>의 누락된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해줄 뿐 아니라 기존의 <대유선시>에 대한 이해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 《십초시》 소재 조당시를 수록된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01. <黃帝詣崆峒山謁容成> (황제가 공동산에 가서 용성공을 찾아뵈다)

黃帝修心息萬機,	황제가 마음을 수양하려 정사보기를 그치니
崆峒到日世情微.	그가 공동산에 다다른 날, 세상의 정은 쇠미해졌다네.
先王道向容成得,	황제의 도는 용성공에게서 얻었고
使者珠隨象罔歸.	사자의 구슬은 상망을 따라 돌아왔네.
涿鹿罷兵形欲蛻,	탁록에서 전쟁을 끝냈으며, 외형은 허물을 벗으려 하였고,
洞庭張樂夢何稀.	동정에서 음악을 연주하였니, 화서국의 꿈은 어찌 그리 희미하였던가?
六宮一閉夜無主,	육궁은 모두 닫히고 밤에 모실 주군이 없는데,
月滿空山雲滿衣.	달빛은 빈 산에 가득하고 구름은 옷에 가득하네.

이 시는 黃帝의 행적을 기리며 찬양한 것이다.

18) 程千帆, <郭景純, 曹堯賓<游仙>詩辨異>, 《古詩考索》, 上海古籍出版社, 1984.
柏秀葉, <曹唐<大游仙詩>의 敘事特色探析>, 《重慶工商大學學報》 22:4, 2005.

전반부에서는 황제가 도를 구하러 궁궐을 떠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며 용성공을 만나 양생술을 터득한 일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무심’, ‘무위’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황제가 탁록에서 벌였던 치우와의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한 것과 신선이 되어 날아간 일, 동정에서 음악을 연주하였고 꿈에서 화서국을 보고 이상적인 통치를 꿈꾸었던 일들을 차례로 말하며 황제와 관련한 고사들을 나열하고, 황제가 떠나간 인간 세상과 공동산에서 신선의 풍모를 나타내고 있는 황제의 모습을 대비시켜 나타내고 있다.

황제와 관련한 이 고사는 앞서 《전당시》 소재 <대유선시>에서 분류된 11가지 고사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당 <대유선시>가 포괄하는 신화의 범위를 훨씬 이전의 시기로까지 소급되게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02. <穆王卻到人間惘然有感> (목왕이 인간세상으로 돌아가니 서왕모가 멍하니 느낀 바가 있다)

瑤池一宴久徘徊,	요지에서 한 번 잔치하며 오래도록 배회하니
春宴香繁玉蕊開.	봄 잔치에 향기는 가득하여 옥예꽃 피어 있네.
風度短簫霜竹冷,	바람 지나가는 짧은 통소에 서리 같은 대나무는 차갑고
月移秋瑟水絲哀.	달빛 옮겨가는 가을 거문고에 물 같은 현이 애달프다네.
白雲眞思勞相和,	흰 구름 속 참된 생각으로 서로 창화 이어나가니
紅露瑤觴不要催.	옥잔의 붉은 이슬 같은 술을 재촉하지는 마세요.
長恐穆王從此去,	목왕께서 여기를 떠나시어
便隨千古夢難回.	천고의 시절토록 꿈에서도 돌아오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이 시는 제목상 ‘有感’의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용상 서왕모가 주체가 되니, 자신과 헤어져 인간세상으로 돌아가는 주목왕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주목왕이 서왕모의 거처를 방문하여 봄 꽃향기 속에서 향연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서늘한 바람과 가을 달, 서리 빛의 통소와 가을 물처럼 가느다란 거문고의 현으로 봄에서 가을로의 시간의 흐름을 말함으로써 만남의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가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주목왕과 함께 잔을 돌리다가 창화하는 모습과 술을 서둘러 마시지 말라는 당부를 통해 만남의 즐거움과 이별의 아쉬움을 말하고 기약 없는 이별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조당 <대유선시>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로서, 시인의 상상을 통한 신화의 재구성과 시인 자신의 감정이 배재된 제3자적인 객관적이고 직서적인 서술방식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철저히 관찰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작가적 상상을 통해 서왕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전당시》 소재 <대유선시> 중 주목왕과 관련한 것으로는 <穆王宴王母于九光流霞館> 1수뿐인데, 《삼초시》에는 이 시 외에 다음의 03. <穆王有懷崑崙舊遊>와 05. <再訪玉眞不遇>까지 총3수가 더 있어 《전당시》의 미진함을 보충해 주고 있으며, 내용상의 서사적 완결성 또한 이루고 있다.

03. <穆王有懷崑崙舊遊> (목왕이 예전에 곤륜산에서 노닐었던 것에 대해 감회가 있다)

周王御日駕龍軒,	목왕이 태양을 다스리며 팔준마가 끄는 수레를 몰아
笑覽秋雲看化元.	웃으며 가을 구름 바라보며 만물의 근원을 관찰했네.
馬繫月中紅桂樹,	말은 달 가운데 붉은 계수나무에 매어놓고,
人傾天上紫霞樽.	사람은 천상의 자하잔을 기울였지.
四溟水照纓裾冷,	사해의 물에 비치어 갓끈과 옷자락은 차가웠고,
八極風吹劍珮翻.	팔극의 바람 맞아 보검과 패옥이 뒤집혔네.
一別玉妃殘酒醒,	신녀와 한 번 이별 하고 술에서 깨어나고선,
不知何處是崑崙.	어디가 곤륜산인지 알지 못하였다네.

이 시는 주목왕의 서방 여행의 과정과 내용을 노래한 것으로, 많은 부분 원래의 신화에는 없는 시인의 상상으로 채워져 있다.

전반부에서 주목왕이 천자의 수레로 하늘을 날며 태양을 다스리는 모습과 가을 구름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조화의 근원을 탐색하는 모습, 달과 천상이라는 상상의 세계와 그 곳에서의 행적을 묘사하며 주목왕의 신통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사해와 팔극을 공간으로 한 주목왕의 광대한 행로와 곤륜산을 배경으로 한 서왕모와의 만남과 이별을 말하고 있다.

주목왕의 일은 《穆天子傳》을 비롯한 여러 서책에 나타나 있는데, 팔준마의 발자취를 온 세상을 남기며 다녔다든지, 곤륜산에서 서왕모와 만나고 헤어졌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다만 이 시에서처럼 태양을 다스리고 가을 구름을 조망했다거나, 말을 달에 매어놓고 천상에서 술을 마셨다거나, 술에서 깨어난 뒤 곤륜산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 시는 신화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인 자신의 신화적 상상을 더한 ‘신화의 창조적 변용’으로서, 신화전설에는 없는 내용을 각색하여 추가함으로써 시의 서사성을 증대시키는 조당 유선시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경우라 할 수 있다.

04. <武帝將感西王母降> (무제가 장차 서왕모가 내려올 것을 느끼다)

崑崙擬思最高峰,	곤륜산 최고봉에 온 생각 맺혀 있더니
金母來乘九色龍.	서왕모께서 아홉 색의 용을 타고 오셨네.
歌聽紫鸞猶縹緲,	노랫소리 들려오는 자색 난새는 아득하고
語成青鳥許從容.	서왕모의 말 전하는 푸른 새는 전아하도다.
風回水落三清漏,	바람 휘돌아 물은 삼청(三清)의 물시계에서 떨어지고
月苦霜傳五夜鐘.	달빛 괴로이 서리는 오야(五夜)의 종소리를 전해 오네.
樹影悠悠花悄悄,	나무 그림자 시름겹고 꽃 그림자 근심스러운데
略聞簫管是行蹤.	희미하게 들리는 통소 소리, 서왕모 떠나간 자취라네.

이 시는 《전당시》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한무제가 七夕날 서왕모를 만나 연회를 즐기는 상황과 서왕모와 헤어지고 난 후의 감회를 노래한 것

이다.

전반부에서는 칠석날 방문할 것이라는 서왕모의 통지를 받고 설레어 있는 한무제의 모습과 지상으로 내려오는 서왕모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밤이 새도록 이어지는 연회의 상황과 이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말하고 서왕모가 떠나간 후의 허전한 심정을 외롭고 쓸쓸한 경관 묘사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전당시》 소재 <대유선시>에서 서왕모와 관련이 있는 시는 이 시 외에 한무제와 관련한 <漢武帝于宮中宴西王母> 1수가 더 있으며, 주목왕과 관련한 <穆王宴王母于九光流霞館> 1수를 포함 총3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십초시》에는 이 시 외에 한무제와 관련한 06. <王母使侍女許飛瓊鼓雲和笙以宴武帝>, 07. <武帝食仙桃留核將種人間>, 10. <漢武帝再請西王母不降> 등 3수가 더 있으며, 주목왕과 관련한 02. <穆王卻到人間惘然有感>, 03. <穆王有懷崑崙舊遊>, 05. <再訪玉真不遇>의 3수를 포함 총7수가 있다. 이는 조당이 서왕모와 관련한 고사를 매우 선호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당시》 수록 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다. 서왕모 신화는 일찍이 《산해경》과 《목천자전》 등 先秦시기 기록부터 보이는데, 처음에는 半人半獸의 흉측한 모습이었다가¹⁹⁾ 魏晉시기 方士가 편찬한 《한무내전》에 이르러 화려하고 아름다운 神女의 모습으로 변화된다.²⁰⁾ 조당시

19) “서왕모는 그 형상은 사람과 같으나,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하고 휘파람을 잘 불며 흐트러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다.(西王母其狀如人, 豹尾虎齒而善嘯, 蓬髮戴勝)” 《山海經·海內西經》

“머리에 장식을 하고 호랑이 이빨에 표범 눈썹을 하고 동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서왕모이다.(有人戴勝, 虎齒豹眉, 穴處, 名曰西王母)” 《山海經·大荒西經》

20) “한무제가 홀연 푸른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났는데, 이르기를 ‘7월 7일에 서왕모께서 잠시 오실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날이 되어 무제가 옷을 갖추어 입고 담장 아래에 서 있으니, 밤에 구름 속에서 피리와 북소리가 들리더니 서왕모가 자색 구름수레를 타고 아홉 색의 열록용을 몰고 왔다. 따로 하늘의 신선들도 있었는데 모두 키가 1장이었다. 서왕모가 대전에 올라 친히 정결한 음식을 차렸다.(武帝忽見青衣女子曰, 七月七日, 王母暫來. ……至日, 帝盛服立牆下, 夜間, 雲中有簫鼓聲, 王母乘紫雲車, 駕九色斑龍. 別有天仙, 皆身長一丈. 王

에서의 서왕모의 모습 또한 하나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며神通력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조당의 이와 같은 서왕모 고사 선호는 아마도 濃艷함과 纖麗함을 추구했던 만당의 풍조에 영향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이 시에는 제7구에서 ‘悠悠’와 ‘悄悄’의 첩자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당 <대유선시>의 특징 중의 하나로 첩자의 잦은 활용을 통한 음율미의 제고를 들고 있다.²¹⁾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대상을 《전당시》 소재 시에 국한하였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실제 《전당시》 소재 <대유선시>에서는 총 17수 중 <漢武帝于宮中宴西王母>, <劉晨阮肇游天台>, <劉阮洞中遇一作偶仙子>, <仙子洞中有懷劉阮>, <織女懷牽牛>, <張碩重寄杜蘭香> 등 6수에서 첩자를 활용하고 있어 전체의 35%를 점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십초시》 소재 조당시에서는 다만 이 시에서만 첩자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며, 이 시 또한 《전당시》에 공통으로 실려 있는 것인 까닭에 결국 8수의 일시 중에서는 단 1수도 첩자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전당시》 소재 시로만 한정된 이와 같은 판단은 분명 재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05. <再訪玉眞不遇> (다시 선녀를 찾아갔으나 만나지를 못하다)

重到瑤臺訪舊遊,	다시금 요대에 이르러 옛날 노닐던 곳을 찾아가니
忽悲身事淚雙流。	홀연 신세 서글퍼 두 줄기 눈물 흘러네.
雲霞已斂當年事,	구름 노을은 이미 그 때의 일을 거두어 버렸고
草木空添此夜愁。	풀 나무는 헛되이 이 밤의 시름을 더하네.
月影西傾驚七夕,	달그림자 서쪽으로 기울어 칠월 칠일 밤은 놀랍고
水聲東注感千秋。	물소리 동쪽으로 흘러 천 년 세월을 느끼네.
唯知伴立魂非斷,	다만 함께 있어야 혼 끊어지지 않음을 알겠나니.
何處笙歌醉碧樓。	어느 곳의 피리 소리인가, 푸른 누각에서 취하네.

母上殿自設精饌) 《漢武內傳·紫蘭室女》

21) 趙婷婷, 《曹唐游仙詩論稿》, 吉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7, 31頁.

이 시는 그 주체가 분명하지 않는데, 주목왕이 서왕모를 만나러 다시 요대에 갔다가 만나지를 못하고 옛날의 만남을 회상하며 서왕모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부에서는 주목왕이 서왕모를 찾아 다시금 요대에 갔으나 만나지 못한 상황과 옛날 요대에서의 만남을 생각하며 시름으로 당시의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서왕모와의 칠석날의 만남과 서왕모의 모습을 회상하며 홀로 남은 자신의 외로움을 흔히 끊어지는 극한의 아픔으로 표현하고 있다.

강석중은 <《十抄詩》 소재 중국 일시 연구>에서 이 시를 앞의 11가지 고사 유형에서 (2)의 해당되는 劉晨과 阮肇 고사에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 근거로 제목의 ‘玉眞’이 <劉阮再到天台, 不復見仙子>의 ‘다시 천대에 이르러 옥진을 방문하니, 푸른 이끼와 흰 돌은 이미 먼지가 되어 버렸네(再到天台訪玉眞, 靑苔白石已成塵)’에서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을 들었다.²²⁾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이 시는 동일한 주제의 반복에 불과하여, 고사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순차적 배치라는 조당 유선시의 서사적 특징에 배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시에 나타난 ‘七夕’이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이를 한무제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무제와 서왕모의 만남이 기술되어 있는 《한무내전》에서는 칠석날 승화전에서의 만남만 있을 뿐 요대에서의 만남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한무제가 서왕모를 찾아 갔다는 내용 또한 없다. 비록 이를 앞의 03. <穆王有懷崑崙舊遊>에서 보인 주목왕의 행적에 대한 ‘신화의 창조적 변용’과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제목에서 ‘다시 찾아가다[再訪]’로 되어 있는 이상 처음 방문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한무제와 관련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된다. 또한 다음의 10. <漢武帝再請西王母不降>에서 이미 《한무내전》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한무제가 서왕

22) 강석중, <《十抄詩》 소재 중국 일시 연구>, 《중국문학》 53, 2007.

모의 강림을 청한 내용이 있는 것과는 상치된다.

따라서 이 시는 비록 여전히 ‘칠석’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주목왕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하니, 역시 시에 나타난 ‘瑤臺’라는 표현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즉 앞의 02. <穆王卻到人間惘然有感>이 주목왕이 처음에 瑤池로 서왕모를 찾아갔을 때의 상황이라면, 이 시는 주목왕이 서왕모와 헤어진 후 다시 瑤臺로 찾아갔을 때의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았을 때 비로소 조당시에서 인용된 유신과 완조의 고사, 목왕의 고사, 한무제의 고사들이 모두 ‘만남-이별-그리움-재회의 불가능’이라는 비슷한 서사구조를 갖추게 되고 내용적 완결성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06. <王母使侍女許飛瓊鼓雲和笙以宴武帝> (서왕모가 시녀 허비경에게 운화생황을 연주하게 하여 무제에게 잔치를 베풀다)
- | | |
|----------|------------------------------|
| 秋水新傳禁漏長, | 가을 물은 새로이 긴 물시계 소리 전해오고 |
| 飛瓊綽約鼓笙簧. | 허비경은 단아하게 생황을 연주하였네. |
| 百年塵夢驚新破, | 백년 속세의 꿈은 놀라 새로이 깨어지고 |
| 五夜雲和樂未央. | 밤새도록 운화생황의 노래는 그치지 않았네. |
| 花影暗回三殿月, | 삼전(三殿)의 달 아래 꽃 그림자는 어슴푸레 휘돌고 |
| 樹聲深鎖九門霜. | 궁궐의 서리에 나무 소리는 깊이 갇히었네. |
| 六宮宮女從如玉, | 육궁(六宮)의 궁녀는 옥처럼 아름다운데 |
| 自此無因見武皇. | 이제는 무황제를 만날 길이 없구나. |

이 시는 한무제가 서왕모를 만나 연회를 벌였을 때의 상황을 소재로 한 것으로, 04. <武帝將感西王母降>에 이어지는 것이다. 시에서는 한무제가 서왕모를 만나 연회를 벌일 때의 즐거운 정경과 서왕모가 떠난 이후의 쓸쓸한 상황이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가을 물에 실려 오는 궁궐의 물시계 소리로 연회가 이루어진 계절적 배경과 시공간적 배경을 말하고 이어 허비경이 서왕모의 명을 받아 운화생황을 연주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달빛

에 비친 어두운 꽃그림자와 서리 덮인 고요한 나무들로 서왕모가 떠난 쓸쓸한 궁궐 모습을 묘사하고 재회의 기약 없는 이별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07. <武帝食仙桃留核將種人間> (무제가 선도를 먹고 그 씨앗을 남겨 장차 인간 세상에 심으려 하다)

仙菓蟠根接閩山,	선과(仙菓) 나무의 뿌리는 낭산에 접해 있고
葉成花謝九天閑.	잎 자라 꽃 떨어지니 구천은 한가롭네.
桑田易浪初垂實,	뽕나무 밭이 물로 바뀌면 막 열매를 맺고
海水成塵始破顏.	바닷물이 흙이 되면 그제야 익는다네.
浩劫未移身已老,	영겁의 세월토록 변치 않으나 인간의 몸은 이미 늙고
大和潛喪夢難還.	태화의 기운 사라져 버려 꿈에서조차 돌아오기 어렵건만.
三千年後知誰在,	삼천년 후에 누가 있을지 알고
欲種紅桃著世間.	인간 세상에 붉은 복숭아 심으려 하였구나.

이 시는 한무제가 서왕모를 만났을 때 仙桃를 건네주었던 일을 소재로 한 것으로, 04. <武帝將感西王母降>과 06. <王母使侍女許飛瓊鼓雲和笙以宴武帝>에 이어지는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선도가 자라는 신선의 세상을 묘사하고 상전벽해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 맺고 익는 靈物임을 말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유한한 인간의 수명을 이에 대비시키며 그 씨를 인간 세상에 심으려 했던 한무제의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고 있다.

08. <萼綠華將歸九疑山別許真人> (악록화가 구의산으로 돌아가려 허진인과 작별하다)

九點煙霞黛色濃,	연기와 노을에 싸인 아홉 산에 먹의 색 짙으니
綠華歸思頗無窮.	악록화의 돌아가고픈 생각 다함이 없네.
每愁馭鶴身難住,	학을 타는 곳에서 살 수 없음을 늘 근심하나니

長恨臨霞語未終。	노을 바라보며 긴 회한 말로 다하지 못하네.
花影暗移雲夢月，	운몽택의 달빛에 꽃 그림자는 남몰래 옮겨가고
歌聲閑落洞庭風。	동정호의 바람에 노래 소리는 한가로이 떨어지는 구나.
藍絲動勒金條遠，	푸른 말 재갈 흔들며 금팔찌 멀어져 가니
留與人間許侍中，	인간 세상에 허시중만 남겨 놓았네.

이 시는 《전당시》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구의산에서 살다 죄를 지어 지상으로 귀양 온 신선 萼綠華가 許翺와 작별하는 상황을 노래한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구의산의 선경을 아름답게 묘사하며 악록화의 향수를 심화시키고 귀양 온 처지에 대한 회한을 나타내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귀양살이가 끝나고 구의산으로 돌아가는 악록화의 가벼운 발걸음과 홀로 남겨진 許翺의 쓸쓸한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 시에서 활용된 고사는 하나가 아니다. 《협주명현십초시》 주에 따르면 악록화에 대한 고사는 華陽隱居 陶弘景이 쓴 《眞誥》에 나오는데, 그 상대자는 許翺가 아니라 晉 簡文帝 때 黃門郎을 지낸 羊欣의 조부 羊權으로 되어 있다. 許翺는 《眞誥》의 다른 부분에서 서왕모의 13녀 雲林夫人의 상대자로 나온다.²³⁾ 조당이 두 개의 고사를 하나로 혼동하여 쓴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변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韋應物의 <萼綠華歌>에서 “세상이 혼탁하니 내려올 수 없도다, 어찌하여 오지 않는가, 許翺의 집에(世淫濁兮不可降, 胡不來兮玉斧家)”라 한 것을 보면 이를 하나로 합친 것이 조당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09. <張碩對杜蘭香留賦織成翠水之衣淒然有感> (장석이 두란향이 짜서 준 비취빛 옷을 대하고 서글픈 감정을 느끼다)

端簡焚香送上眞，	단아하게 글 쓰고 향 피워 신선 세상으로 보내건만
五雲無復更相親。	오색구름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네.
魂交縱有丹臺夢，	혼이야 만나서 설령 붉은 누대의 꿈 이를 수는 있

23) 釋子產 夾注·查屏球 整理, 《夾注名賢十抄詩》, 上海古籍出版社, 2005, 130頁.

	지만
骨重終非碧落人,	육신이 무거워 결국 신선 세상의 사람은 아니라네.
風靜更悲青桂晚,	바람 고요하니 저물녘 푸른 계수나무 더욱 서글프고
月明空想白榆春,	달은 밝아 봄날 흰 느릅나무 부질없이 생각나네.
麟衣鶴氅雖然在,	기린 옷과 학의 깃옷은 여전히 있건만
終作西陵石上塵,	마침내 서릉 묘석 위의 먼지가 되어버렸구나.

이 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장식과 혼인하여 살다가 선계로 올라간 杜蘭香의 고사를 소재로 한 것으로, 《전당시》에 실린 <張碩重寄杜蘭香>에 이어지는 시이다.

시에서는 전편에 걸쳐 두란향과 이별한 장식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두란향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장식의 간절한 몸짓과 신과 인간 사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대한 절망이 나타나 있으며, 후반부에는 두란향이 있을 상상 속의 선계의 모습과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수명에 대한 회한이 나타나 있다.

10. <漢武帝再請西王母不降> (한무제가 다시 청했으나 서왕모가 내려오지 않다.)

武帝清齋夾帳開,	한무제가 재실을 정갈히 하고 휘장을 펼쳐놓고는
重祈王母下瑤臺.	서왕모가 요대에서 내려오시기를 거듭 기원하였네.
內人執酒空長望,	궁인들은 술 들고서 헛되이 오래도록 바라보았으니,
玉女留書許再回.	옥녀가 글을 남겨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네.
露夕月光清滿樹,	이슬 맺힌 저녁 달빛은 청아하게 나무에 가득하고
火寒香焰暗成灰.	불 식어버린 향불은 검게 재가 되어 갔네.
黃金燒盡秋宮冷,	황금 단약 다 타버리고 가을 궁궐 차가워지도록
九色眞龍不見來,	아홉색 천상의 용은 보이지를 앓았네.

이 시 역시 서왕모의 고사를 소재로 한 것으로, 시간적 흐름으로 보아 04. <武帝將感西王母降>, 06. <王母使侍女許飛瓊鼓雲和笙以宴武帝>, 07.

<武帝食仙桃留核將種人間>에 이어지는 것이다. 《漢武故事》에 따르면, 서왕모는 칠석날 한무제와 만나 함께 밤을 보낸 뒤 한무제의 정성에 감동하여 저녁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났으나 다시 오지 않았다.

전반부에서는 정결한 재실과 펼친 휘장, 준비된 주연을 통해 서왕모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한무제의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만남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을 말하며 식어버린 불과 재가 되어버린 향, 타버린 황금 단약과 차가운 궁전을 통해 한무제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IV. 맺으며

‘游仙’은 선진시기부터 인간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고대 문학의 발생 초기부터 중심주제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그 전개의 양상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현대 이전의 시기까지 ‘유선’의 주제는 신선사상에 대한 관심과 숭모, 이상 사회에 대한 지향과 추구가 그 근본 바탕이었으며,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현실에 대한 반감과 개인적 좌절로 대한 상실감의 표출이 기본적인 정서였다. 당대에는 신선세계를 현실적인 추구가 가능한 세상으로서 여기는 ‘유선의 세속화’가 나타난 시기였다.

만당의 曹唐은 육조시기의 郭璞과 더불어 중국 유선시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높은 성취를 인정받아 왔다. 그의 시의 가치는 현재 일부만 전해지고 있는 <대유선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중 8수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십초시》에 전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十抄詩》 소재 조당 유선시가 갖는 의의와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먼저 조당 유선시의 유전 현황을 개괄하고 조당 이전의 유선시에 대한 사적고찰을 통해 조당 유선시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만당의 시기에 활동했던 조당은 <대유선시>와 <소유선시>를 통해

당대 뿐 아니라 현대와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모두 아울러 당시까지의 중국 유선시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나아가 ‘신화 중심의 서사적 표현’이라는 새로운 작시방법을 도입하여 중국 유선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십초시》 소재 일시의 《전당시》에 수록되어 있는 기존 유선시와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조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완과 보충을 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11가지 고사 속에 포함되지 않는, 황제와 관련한 고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당 <대유선시>가 포괄하는 신화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둘째, 운자의 용례나 첩자의 활용 같은 형식상의 특징 규명은 《십초시》 소재 일시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십초시》 소재 일시는 조당 유선시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내용적 완결성을 이루게 함으로써, 조당 유선시에 활용된 각각의 고사들이 대체로 유사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십초시》 소재 일시를 포함하였을 때 조당 유선시에서 차용된 신화의 유형과 경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그가 특히 서왕모의 고사를 많이 활용했었다는 점은 그의 시의 만당시적 색채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강석중, <《十抄詩》의 中國詩 選詩 樣相 一考>, 《한국한시연구 11》, 태학사, 2003.
- 강석중, <《十抄詩》 소재 중국 일시 연구>, 《중국문학》 제53집, 2007.
- 임도현, <《(협주)명현십초시》의 간행목적과 유전양상>, 《중국어문학》 제57집, 2011.6.
- 임도현, 《이백의 자아 추구 양상과 문학적 반영》, 서울대 박사논문, 2012.8.

- 호승희, <《십초시》의 자료적 이해와 편찬체제>, 《韓國漢文學研究》 19, 1996.
- 호승희, <《십초시》 일고-《진당시》 미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15, 1995.
- 牛林杰, <韓國文獻中的《全唐詩》佚詩考>, 《文史哲》, 1998年 第5期.
- 金程宇, <韓國本《十抄詩》中的唐人佚詩輯考>, 《瀋陽師範學院學報》, 2002年 第5期.
- 盧曉輝, <淺析曹唐游仙詩的內容特色>, 《昭通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8: 1, 2006.
- 趙婷婷, 《曹唐游仙詩論稿》, 吉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7.
- 金炳燕, 《曹唐及其詩歌研究》, 南京師範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8.
- 辛鑫, <曹唐大游仙詩的文學價值>, 《現代語文》(文學研究版) 5, 2008.
- 程千帆, <郭景純, 曹堯賓<游仙>詩辨異>, 《古詩考索》, 上海古籍出版社, 1984.
- 柏秀葉, <曹唐<大游仙詩>的敘事特色探析>, 《重慶工商大學學報》 22:4, 2005.
- 釋子產 夾注·查屏球 整理, 《夾注名賢十抄詩》, 上海古籍出版社, 2005.

<中文提要>

曹唐是晚唐, 以其游仙詩聞名. 現在小游仙詩九十八首和大游仙詩十七首傳在《全唐詩》里. 韓國高麗時代編纂的《十抄詩》里也有曹唐詩十首, 其中八首是沒在《全唐詩》里的佚詩. 用這些佚詩我們可以闡明曹唐游仙詩的大體規模和特色, 所以這本具有很重要的文籍上意義和價值.

我在本考里分析了《十抄詩》里的八首曹唐佚詩, 而能明白了曹唐游仙詩的特色; 曹唐游仙詩創新了漢魏以來的中國游仙詩的傳統, 而開闢了中國游仙詩的新領域. 曹唐把神話故事作爲了他游仙詩的主要題材, 開闢了以神話中心的敘述方式, 而且通過自己的想像改變了神話的原義. 他的這樣作法是在以

前的游仙詩里不能看見的。

通過分析《十抄詩》里的佚詩〈再訪玉眞不遇〉，我們能一貫周到的構成了周穆王游仙詩的內容結構。通過〈武帝將感西王母降〉里的疊字用例，我們能發明了在曹唐游仙詩疊字活用不是常見的一般傾向，而是只在《全唐詩》常見的，所以不能肯定曹唐游仙詩善用疊字。其外，曹唐特別愛好西王母故事這一事實，則說明他的詩很多受到晚唐艷麗風度的影響。

주제어 : 十抄詩, 夾注明賢十抄詩, 曹唐, 游仙詩, 大游仙詩, 小游仙詩

